

부자는 문학으로 통했다…시집·평론 등 두번째 의기투합

4년 전 동시 출간으로 화제를 모은 부자 문인이 다시 4년만에 시집과 평론집을 펴내고 함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주인공은 중견 광주 출판사로 평가를 받는 ‘시와사람’의 강경호 발행인과 강나루 공동주관 겸 편집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시와 평론 등 장르까지 걸쳐 있다. 문학적으로는 시간을 초탈해 동반자가 된 듯하다.

이들 부자지간의 맹렬한 글쓰기 대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등단한 현역 시인들이자 한 출판사를 책임지는 동일인상에 서 있는 것 역시 공동점이다.

아버지가 일귀는 출판사를 아들이 이어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늘 문학이 공통 관심사이고, 단골 이야기 메뉴 역시 문학이라는 반응이다. 이들 부자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대표적 부자지간 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2022년 처음으로 의기투합했다. 당시 부자지간 동시 출간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22년 당시 강 발행인은 ‘미술의 상상력을 통한 시적 발화’와 ‘서정의 양식과 혼들리는 풍경’ 등 2권을 펴냈고, 강나루 시인은 부친 강경호 시인의 시 세계를 연구한 ‘휴머니즘과 자연의 수사학’을 비롯해 시집 ‘갑자가 눈을 뜰 때’, 에세이집

‘시와사람’ 강경호·나루 부자 4년만에 작품집 4권 선보여
“그림보고 문학적 발상…공간의 특별한 관계 규명” 밝혀
동반 출판회 23일 오전 11시 중요 문단 인사들 참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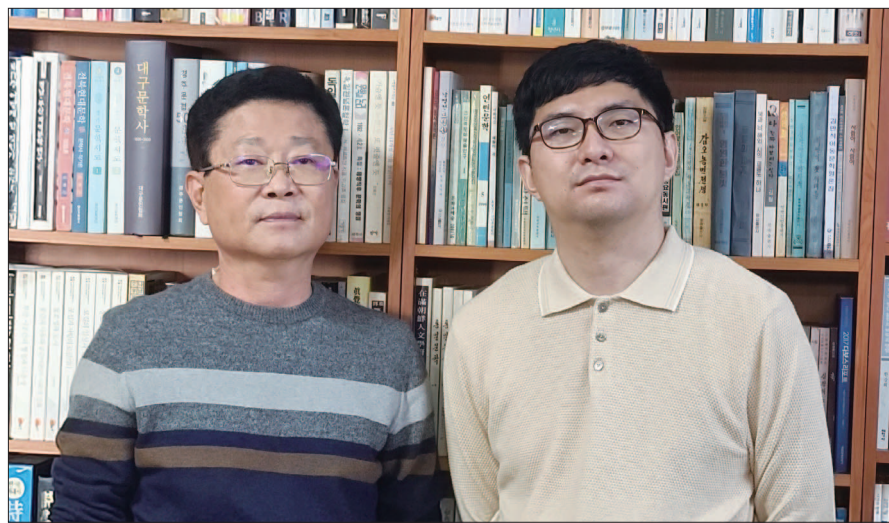


‘낮은 대문이 내게 건네는 말’, 동시집 ‘백화점에 여우가 나타났다’ 등 4권을 펴내는 등 총 6권을 출간했다.

이번에는 부친인 강 발행인이 여섯 번째 시집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울다’와 평론집 ‘문학과 인접 예술의 상호텍스트성’을, 강 공동주관 겸 편집장은 두 번째 동시집 ‘해님도 아플 때가 있어요’와 평론집 ‘흔들리는 것들의 거처’ 2권씩 총 4권을 펴냈다. 더욱이 강 공동주관 겸 편집장은 2023년 한양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힘든 일정 속에 올해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강경호 발행인은 개인적으로 여섯 번째 시집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울다’에서 “타인의 상처를 존재의 언어로 끌어올린, 이 시대 마지막 서정시의 증언자” (김동원 문학평론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문학평론집 ‘문학과 인접 예술의 상호텍스트성’은 시를 중심으로 인접 예술인 회화, 디자인, 사진, 서예, 수석, 음악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교감하는지의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시집과 평론 등 4권의 작품집을 펴내고 한 자리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기로 한 ‘시와사람’의 강경호·나루 부자.

이어 아들인 강나루 작가의 두 번째 동시집 ‘해님도 아플 때가 있어요’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각화를 통해 대상을 인격체로 변화시키며, 기존 동시의 문법을 해체했다” (강경호 문학평론가)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 평론집 ‘흔들리는 것들의 거처’는 장소성과 공간성에 전착해 시를 분석하고, 생명성 탐구, 흔적을 통한 사물의 시간 살피기,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방식, 세계와 관계맺기 등을 내밀하게 분석해 규명하고 있다.

이 두 부자는 어떤 삶의 혼들림에 관한 사유는 같지만 시선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학적 인식차를 드러냈다. 강 발행인은 학부 때 미술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한 프로필 답게 문학과 미술을 넘나들며 다년간 글쓰기에 전념해 왔다. 단순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 주어진 시간들은 글쓰기 아니면 문예지나 시집 등 문학서들을 만드는데 집중하며 보낸다. 그는 “미술 작품을 보고 시적 영감을 받고 한다. 그림을 놓고 어떤 문학적 발상을 했다.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

이 상호텍스트성이다. 이것이 수용미학적 관심이 된 것이다. 요즘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글쓰기가 됐다”고 했고, 강나루 편집장은 이번 글쓰기에 “시적 화자와 공간의 혼용이 아니라 공간의 특별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시와사람’은 문학적으로 광주정신을 잇기 위한 뜻으로 5·18민중항쟁 16주기인 1996년 5월 18일 창간한 이후 광주전남 시단에 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한국시문학을 견인하자는 모토를 내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와사람 서정시선 및 오늘의 시와사람 시선 등 두개의 시선, 계간 ‘시와사람’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집 등 각종 작품집을 펴내며 지역 문학출판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강경호·나루 부자 출판기념회는 23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호은 이사장 (한국문협)을 비롯해 김민정 부이사장 (한국문협)과 김중시인 (전 광주문협 회장), 임원식 회장 (광주예총), 박덕은 회장 (광주문협), 임일환 회장 (전남문협), 박영덕 이사장 (국제PEN광주) 등 중요 문학 인사들이 참여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아트페어 오늘 개막…시대의 거장 ‘호크니·쿠사마’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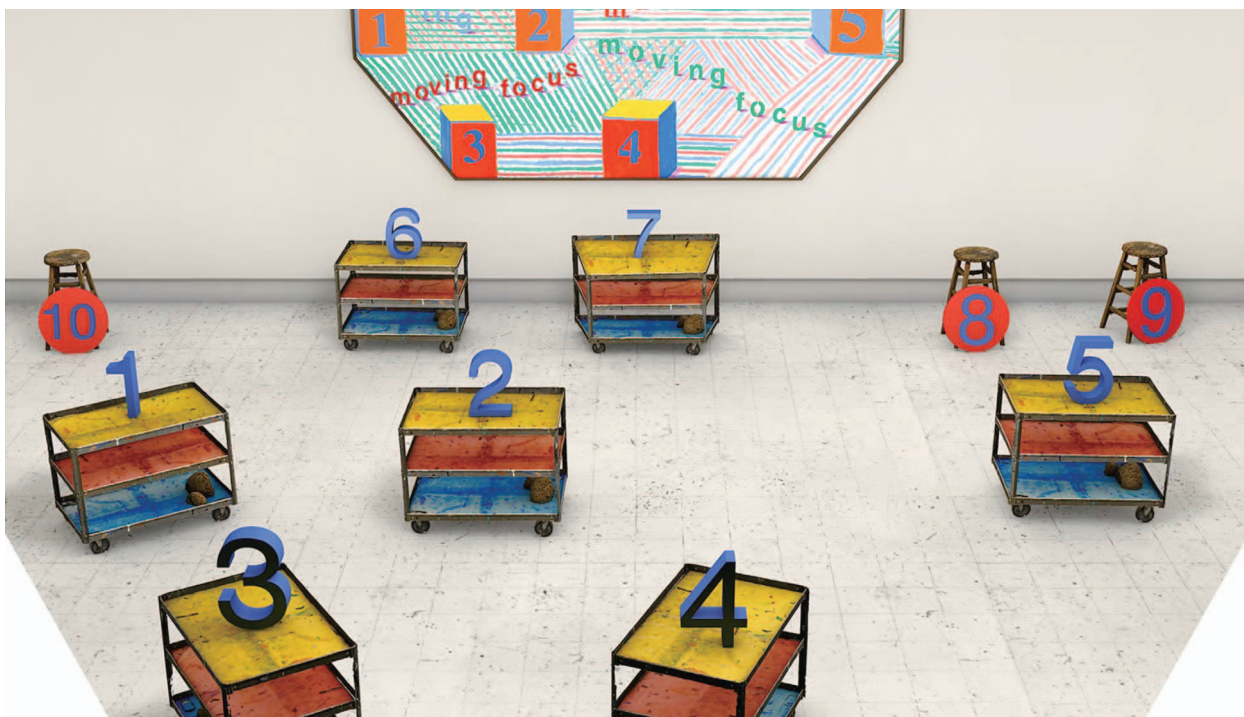
제17회 광주국제아트페어
특별전시 ‘현대미술의 영웅’

개인 컬렉터 소장품 출품
키스 해링·앤디 워홀 등

22일 개막, 오는 2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ABC홀에서 열릴 ‘제17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는 다른 해와 달리 각별한 의미를 띄는 코너가 마련된다. 보통 각 코너들은 대회 명칭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묻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코너는 눈에 안 띄지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대미술에 굽적한 족적을 남긴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미술계가 불운을 맞닥뜨렸다. 영국 팝아트를 대표하며 회화와 사진, 디지털 기술을 넘나든 데이비드 호크니가 지난 6월 11일 88세로 별세한 데 이어 물방울과 호박, 무한 반복의 이미지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쿠사마 야요이가 8월 14일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서다. 이들은 미술계 안팎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거장들이어서 미술계 한쪽 귀동이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들의 별세는 생재기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작가가 떠난 지 불과 3~4개월 밖에 안된 시점여서 광주국제아트페어를 찾는 이들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팝아트를 비롯한 전후 현대미술의 표현 영역을 넓혀온 두 거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현대미술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특별전은 각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주제 ‘영웅’은 한 시대의 감각을 바꾼 작가들을 지칭한다.

선영현 아트광주 프로젝트 디렉터가 기획한 이번 특별전은 한 개인 컬렉터 (현역 의사)가 오랜 시간 수집해 온 소장품으로 구성됐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기획에 따라 새롭게 모인 작품이 아



데이비드 호크니 작 ‘Focus Moving’



야요이 쿠사마 작 ‘Pumpkin’



장 미셸 바스키아 작 ‘In Italian’



키스 해링 작 ‘Untitled’ 연작

니라 컬렉터의 관심과 취향, 작품과 맺어온 관계가 축적된 컬렉션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점과 한 컬렉터의 시선을 따라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 매체를 오간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 유명 작가의 작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작가별 공간에 생애와 작업 배경, 작품에 얽힌 일화와 관련 자료를 함께 배치해 관람객이 작품의 표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삶과 시대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이들 작품이 관람객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호크니와 쿠사마 외에도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앤디

워홀, 줄리안 오피, 매트사키, 무라카미 다카시, 나라 요시토모, 미스터 등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에디션, 아트북, 아트 오브제 등 15점이 출품돼 관람객들을 맞는다.

전시의 중심에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작품 ‘Focus Moving’과 대형 아트북 ‘A Bigger Book’이 배치되고, 쿠사마 야요이의 ‘Pumpkin (2)’와 ‘Pumpkin (White Y)’도 공개된다.

호크니가 빛과 공간, 시각과 시간의 문제를 회화와 사진, 디지털 기술로 탐구했다면 쿠사마는 반복되는 이미지와 무한의 감각을 회화·조각·설치와 대중문화로 확장했다.

여기다 키스 해링의 전시 공간에서는 1987년에 제작된 드로잉과 함께 작품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며, 장 미셸 바스키아의 ‘In Italian’ 이미지가 사용된 1992년 휘트니미술관 전시 포스터와 키스 해링의 ‘Untitled’, 앤디 워홀의 ‘Flowers’도 함께 선보인다.

선영현 디렉터는 이번 특별전에 대해 “올해 별세한 데이비드 호크니나 쿠사마 야요이를 망라해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컬렉터가 소장하던 것인데 특별전으로 선보이게 됐다. 특별전에 선보이는 작품들을 아무나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구축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는데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신안해저선 발굴 50년’ 동아시아 해상교류 조영
국립광주박물관, 23~24일 국제학술포럼

신안해저선 발굴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14세기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행사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 (관장 최홍선)은 동양미술사학회 (회장 김윤정)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박물관 대강당에서 ‘신안해저선 발굴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을 연다.

신안해저선은 1323년 중국 경원 (현재 닝보)에서 출항해 일본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무역선이다.

1975년 전남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도자기가 발견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며, 1976년부터 1984년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도자기와 동전, 목재 등 2만7,000여점의 문화유산이 확인됐다.

이들 유물은 14세기 동아시아 해상무역과 물품의 생산·유통·소비 구조, 당시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중국·일본·대만 연구자들이 참여해 2개의 기조강연과 3개 부문, 총 13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첫날인 23일에는 한국 도자사 연구의 권위자인 방병선 교수의 ‘신안해저선 발굴 50년’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 ‘14세기 동아시아 문화교류 읽기’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둘째 날인 24일은 대만 도자사 연구의 권위자인 세밍량 교수의 ‘중국 도자사의 관점에서 본 신안해저선 도자기의 위치와 의의’ 기조강연이 시작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신안해저선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연구자 간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게임 속 포켓몬과 현실 속 화석의 특별한 만남

국립광주과학관, 12월 중순 특별전 개막

포켓몬과 실제 화석을 비교하며 고생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이정구)은 ㈜포켓몬코리아와 오는 12월 중순부터 특별전 ‘포켓몬 화석박물관’ (Pokemon Fossil Museum)을 진행한다.

‘포켓몬 화석박물관’은 인기 게임 ‘포켓몬스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화석포켓몬과 현실 세계에서 발견되는 고생물을 비교하며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는 전시다. 관람객들이 포켓몬의 세계관을 통해 고생물학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일본 국립과학박물관과 ㈜포켓몬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일본 각지 순회 전시와 미국 시카고 필드 자연사박

물관 등에서 입장권 매진이 이어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광주는 이번 전시의 두 번째 해외 개최지다.

전시에서는 백악기 육식공룡인 ‘타르보사우루스’를 비롯한 공룡 골격 표본과 폭군포켓몬 ‘전기라스’, 암모나이트 화석과 소용돌이포켓몬 ‘암나이트’ 등을 나란히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포켓몬과 지질시대 화석을 비교하며 고생물의 특징과 화석 연구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화석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포켓몬의 세계관과 연결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새로운 과학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